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도민께 심려 끼쳐 죄송”

‘도당위원장 단독 추대’ 민주당 이상직 의원 ‘이스타 살리기 전력’ 입장 “내주 최종구 사장이 전반적 입장 밝힐 듯”

“당원과 함께 정권 재창출 위해 많은 소통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28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전북도민과 임직원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할말은 많지만 지금은 비행기를 다시 띄울때인 만큼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 결렬로 위기에 빠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8일 단독으로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후보 자격으로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경영에 참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13년간 전북도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이스타항공의 재기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경영진에 건의하겠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번 M&A 결렬에 대한 원인 제공을 제주항공 탓으로

돌렸다. 그는 “지난해 9월 제주항공 등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로부터 인수 합병 제의가 먼저 들어왔고 제주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지시를 받아 노선을 조정한 것으로 안다. 매각 대금까지 조정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먹튀를 한 것은 제주항공이다”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주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전북을 찾아 도민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이스타항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등 항간의 말

에 대해 “직접 경영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지원을 주문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지금은 불이 난 상황으로 이 불을 끄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도당위원장으로 단독 추대된 것과 관련, “단독 후보로 추대된 만큼 지역위원장, 당원과 함께 전북 정치발전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많은 소통을 하며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라며 “소통을 통한 원팀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촘촘의

독심과 경륜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7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주거정책과 구조개혁, 전북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28일 밝혔다.

서민주거정책 구조개혁과 전북 발전

도의회 행자위, 세미나 열어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지난 27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주거정책과 구조개혁, 전북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전북교수·연구자연합, 정책공간 전북혁신이 공동 주최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 주택건설 및 보급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중앙정부의 독점적이고 획일적인 주택정책이 장기간 추진되면서 공간적·계층적·지역적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공

공주택 보급이 집중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발제와 소준호 우석대교수의 진행, 신원식 전북도기획관, 김형우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전북개발공사 주택사업처장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를 기획한 박용근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국가 전반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이제 우리도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삶을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경기도의 기본주택 개념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이용호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 이용호 의원이 지난 27일, 시사연합신문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주최한 2020 대한민국 경제문화공헌대상 시상식(대회장 이종걸)에서 국회의 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주최측은 “이용호 의원이 정치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행복지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청년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청년고용법’, 코로나19 사태의 해법으로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공공의

대법’ 재난기간 동안 피해를 본 서민들을 구제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 등을 발의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김병명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위한 법안 발의

민주 김수흥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민생법안 6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6건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및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혁신성장기업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영세법인을 보호하고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혁신기업 육성을 독려했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등은 국제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누락



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적 미비로 발생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고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실질적 힘이 되기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정읍시의회, 하반기 부의장에 이상길 의원 선출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이어서 이상길 의원을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으로 당선된 이상길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불안한 환경속에서 도민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챙기며 시민과 함께하는 모범적인 선진의회가 되도록 동료 의원과 손잡고 맡은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앞으로 후반기 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며 원만한 시정운영을 위해 집행부와 가교역할로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더 나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지난 27일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지역사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28일 밝혔다.

정읍시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지난 27일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지역사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8대 후반기 의장단을 비롯해 역대 정읍시의회를 이끈 배문환(4대 전반기), 김상기(4대 후반기), 박진상(5대 전반기), 우천규(7대 전반기), 최낙삼(8대 전반기) 의장 등이 참석했다.

역대 의장들은 정읍발전을 위한 선배들의 의견을 전달할 자리와 기회를

마련해줘 감사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정읍시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상중 의장은 “의정 발전에 공헌도가 높았던 역대 의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정읍시가 더 큰 도약을 위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후배 의원들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